북스

Books

‘吟風弄月’ 한시의 풍경과 미학

〈음풍농월〉

우리 한시를 읽다

이종묵 지음

“다반사(茶飯事)는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과 같은 일상을 말한다. 옛 사람에게 한시(漢詩)는 다반사였다. 희로애락을 시로 옮겼다. 조선의 몰락과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쇠락해 버린 한시. 한시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받지만 고려청자가 그러하듯 선조들이 느낀 아름다움이 퇴색되지는 않았다.”

서울대 국문과에 재직하며 한시를 연구해온 이종묵 교수는 우리 한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 한시를 읽다’는 신라시대 고운 최치원의 ‘가을 밤 비 내리는데(추야우중·秋夜雨中)’부터 구한말 매천 황현의 ‘목숨을 끊으면서(절명시·絶命詩)’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시가 걸어온 길을 짚어보고 중국 한시와 다른 우리 한시의 특징을 찾아 본다.

특히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한시의 다양한 풍경과 미학을 소개하고 우리 한시가 끊임없이 추구해온 새로움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신라 말부터 조선 중기까지 한시의 대세는 음풍농월(吟風弄月)이었다. 창작 방법과 미학의 측면에선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시사에서도 당풍(唐風)과 송풍(宋風)이 시대에 따라 교체해 왔다.

하지만 18세기 무렵부터 문단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개성에 바탕을 둔 새로움을 추구하고 중국적인 것이 아닌 조선적인 무엇을 담아야 진정한 시라는 각성이 일어난 것. 이에 따라 조선적인 경물과 풍속을 시에 담아내고 우리말 어휘를 시어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정약용은 여기서 더 나아가 ‘송파에서 시를 주고받으며(송파수작·松坡酬酢)’란 시에서 스스로 조선 시를 쓰겠노라고 선언하기도 했다고 한다.

‘시 속의 그림, 그림 속의 시’ 에서는 이승인, 이인로, 고경명 등의 한시를 들어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듯한 우리 한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그림에 쓴 시는 그림이 말하지 못하는 뜻을 읽게 하고 그림이 담을 수 없는 소리를 듣게한다.” (본문 139쪽)

‘시의 뜻을 호방하게 하는 법’에서는 원유(遠遊)하며 기상을 드높이고, 잠심(潛心)하여 뜻을

고운 최치원에서 매천 황현까지

조상들 아름다운 정신 새록새록

깊게 한 옛 시인의 면모를 정몽주의 시를 통해 살펴본다.

“한편으로 산천을 유람하며 스케일이 큰 시를 쓰고, 다른 한편 서재에서 사색하면서 깊이가 있는 시를 써야 큰 시인이 된다.”(본문 154쪽)

한시의 아름다움은 그 속에 담긴 소리와 향기, 그림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 한시의 아름다운 음향을 따라갈 수 없었던 우리 조상들은 소리의 울림보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개성을 발휘하는 ‘높은 정신’을 선택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저자는 또 한시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한시는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아야 하고 귀를 기울여 작은 소리조차 들어야 한다. 냉철한 머리로 따져서 읽어야 하고 뜨거운 가슴을 열고 마음을 함께 하여야 한다. 그래야 한시의 아름다움이 보인다”고 말한다.

〈돌베개·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재즈의 모든 것

이원희 ‘재즈의 문화사’

재즈 마니아 이원희씨가 재즈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재즈 문화사’를 펴냈다.

‘노예의 피’, ‘근접하는 음, 블루노트’ ‘흩어지는 음을 담으려 하다’,‘재즈는 멈추지 않는다’ 등 모두 20개 장으로 구성된 책은 미국에서 태어난 재즈가 세계 예술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살핀 책이다.

책은 재즈나 음악가에 대한 단순한 일화나 천편일률적인 역사를 소개하는 대신 음악 자체와 재즈사(史)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각 장마다 문학적 상상력을 가미, 재즈를 의인화해 재즈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말·글·빛냄〉

/김미은기자 mekim@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살게 만든다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

공지영 지음

소설가 공지영은 웬지 서울 깍쟁이같아 보인다. 그래서 소탈함이나 유머 코드와는 인연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스스로의 표현처럼 ‘너무 엄숙주의적으로 글을 써 온 데서 빚어진 일’일 수도 있겠다.

공씨가 이번에 펴낸 에세이집 ‘아주 가벼운 깃털 하나’는 제목처럼 아주 ‘가볍다’. 또 유쾌하고 즐겁다. 30여편의 글을 읽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머물고, 어떤 글은 박장대소하게 만든다.

책을 읽다보면 사소한 것이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나이 들면서 소중해지는 게 유머라는 그녀의 말에 동감하게 된다.

‘작정하고’ 쓴 재미있는 문체의 매력 덕이기도 하지만 이 책이 빛을 발하는 건 그녀에게 이런 양질의 소재를 제공하는 주변 사람들의 유쾌하고, 때론 감동적인 삶 덕분이다.

주변에 오래된 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를 많이 두고 있다는 작가의 말대로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양각색의 재미난 에피소드를 쏟아낸다. 또 이미 소설 ‘즐거운 나의 집’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던 제제, 둥빈이, 그리고 딸 아이의 일상 역시 유쾌한 소재다.

초등학교 4학년 막내 제제가 가출을 하려고 시도한 이야기나 죽을만큼 고통스러웠던 둘째 아이 낳을 때, 이혼하러 법원에 갔을 때 사인해준 이야기 등 재미난 에피소드가 즐비하다.

글을 읽다 보면 그녀는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리산 자락의 낙장불입 시인과 버들치 시인처럼 마음이 아플 때 무작정 기댈 수 있는 오래된 친구들이 많은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일 뿐 아니라, 작가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글감’이 되기도 하는 걸 보면.

웃을 일 없는 요즘 세상, 이 책을 통해 가슴 따뜻한 유머의 매력에 풍덩 빠져 보시길. 책 말미 실린 자신이 묻고 답한 ‘자기 인터뷰’도 독특하다.

〈한겨레·1만 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책

▲음악사의 진짜 이야기=음악사회사를 전공한 니시하라 미노루가 바흐부터 존 케이지까지 대가들에 얽힌 에피소드를 통해 음악사를 흥미롭게 설명한다. 로시니가 37살에 ‘윌리엄 텔’을 끝으로 오페라 창작을 그만둔 이유와 베토벤의 교향곡 5번에 ‘운명’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뒷이야기 등을 만날 수 있다. 〈열대림·1만4천800원〉

▲스크래치!=캐나다 스테판 동피에르의 장편소설로 발칙하고 섹시한 연애성장담이다. 미성숙한 자신에 실망하면서도, 어린 소년 같은 감수성과 장난기는 어쩔 수 없는 여자 나이 서른 살. 남자들이라면 공감하고 그 남자들의 속마음이 궁금했던 여자들에게 해답을 주는 재기발랄한 이야기이다. 〈솔· 9천500원〉

▲대박운을 부르는 신 풍수인테리어=풍수지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풍수지리전문가 박상근씨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정통 풍수이론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풀어 썼다. 또 주거 형태에 따른 다양한 사례를 들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웅진 리빙하우스·1만3천원〉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함께 살면서도 사랑을 숨겨야 하는 아픔을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해야 하는 두 남녀의 애틋한 사랑을 다룬 소설.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의 시인 원태연의 소설 데뷔작으로 발간과 영화 제작이 동시에 결정될 만큼 매력적인 사랑이야기이다. 〈도서출판 광·1만3천원〉

▲엑또르 씨의 시간여행=프랑스의 정신과 전문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프랑수아 를로르가 쓴 심리 치유 소설. 파리에서 가장 바쁜 정신과 의사인 엑또르가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고민을 안고 전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 여행길에서 그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흘러가는 시간에 대처하는 방법을 듣는다. 〈랜덤하우스· 1만원〉

▲죽음의 중지=노벨상 수상자 사라마구의 2005년작. “다음 날, 아무도 죽지 않았다”란 첫 문장이 말해주듯, 죽음이 중지된 미래상을 그리는 소설이다. 죽음이 사라진 세상을 환호하는 것도 잠시. 자리가 모자란 양로원, 연금 수급 문제, 종교 기관의 무력화 등 새로운 사회 문제가 생기면서 세상은 혼란에 빠진다.〈해냄·1만2천500원〉

▲경제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가?=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사학자 로버트 하일브로너와 미국 MIT 교수인 레스터 서로가 함께 쓴 책으로 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이론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경제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밝힌다. 원제는 ‘Economy Explained’. 〈부키·1만3천원〉

▲CEO, 역사에게 묻다=종합컨설팅회사인 딜로이트컨설팅코리아의 부사장인 김경준씨가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역사에서 찾은 위기극복 전략과 리더십을 제시한다. 저자는 위기극복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며 위기상황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위즈덤하우스·1만5천원〉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직접거래
010-8004-6669
고흥 녹동 고속터미널옆
(봉암리조선소 확정지역)
상가부지 500평~700평
(당 50만원)
시세절반 가격
고흥 득량도(섬)
800평. 평당3만원
낚시터, 별장지역으로 최적
고흥 바닷가 전원주택지
(답) 812평
(현황도로접)
평당 1만2천원
금 1천만원
고흥군 조용한 바닷가 외딴지 전세 2천 노후주 생활비 제공함.

금보부동산컨설팅
☎(代)261-8949 핸 011-602-2233
(산수동 543-51(두암타운입구 삼거리))
▶싼땅매매
·동구 산수동 35m²대로변 나대지720.6㎡ 매매가 6억 5,000만원(급매 주유소, 창원부지 들류 최고적지
·광산구 장록동 생산녹지 畓 1,941㎡ 매가 2억 4,000만원
·북구 망월동 청옥동2차선변 1층주거지역대, 280㎡매매가5억
·담양군 남면 구산리 계획관리지역 임야 6,969㎡(2차선 접 매매가 1억5,000만원급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임야 853,558㎡(2차선접) 농림지역 매매가 1억 3,000만원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임야 18,000㎡(국도접) 관리지역 매매가 1억 9,000만원
·담양군 용 산리 전답주택지 1,400㎡(4차선접) 매매가 1억5,000만원
·장성 백양사 부근 4차선접 주거지역 5,107㎡ 급매 ㎡당 60만원(전선, 상가, 식당 적합)
·장성군 지죽동 준공업지역 2,210㎡ ㎡당 8만원
▶건물매매
·북구 문흥동 대지 396㎡ 건 1,791㎡(지하 1층지상 6층) 세 보증금 2억,400만원에 월644만원 매가 4억(융자4억,000만원)
·북구 두암동 상권최고 4거리 코너 대지 1,023㎡ 건5,473㎡ 세보증금 20억 월 4,000만원 매가 60억(융자 18억포함)
·서구 농성동 대로변 대 512㎡ 건1,139㎡(지하1층 지상4층 세 보증금 1억 9,000만원 월 660만원) 매매가 9억 7,000만원(융자5억포함)
·북구 문흥동 대지 127㎡ 건 192㎡지상 3층 매매가 1억 5,000만원(소형도로 x15m 코너)
·북구 문흥동 상업혼합지 대지 243.8㎡ 건물 210.5㎡ 세 보증금 1억 4,300만원에 월730만원 융자8억 매매가 9억
▶고시원 및 원룸주택매매
·남구 주월동 대304㎡ 건496㎡ 1층 주차2~4층 원룸 및 투룸 세 보증금3,100만원 월700만원 매매가8억 5,000만원(신축)
·동구 산수동 대176.2㎡ 건224㎡ 투룸 5세대 세 보증금 1억 2,300만원에 월120만원 매3억2,000만원(융자 5,000만원포함)
·북구 문흥동 상다 뒷편 대 332㎡ 건 302㎡ 건물 2층 고시원 실 35실 월수익 약 1,580만원 매매가 8억 5,000만원(융자 3억8,000만원 포함 급매)
▶주유소매매
·동구 산수동 대지887.7㎡ 주유소 상업지역 매매가 12억(융자5억,000만원포함)
※ 주유소 부지, 사의 주유소 매물 다량 보유 심심 환영
※ 토지, 건물, 원룸 물건 다량 보유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Tel: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환 수완지구 상업용지 건축상담
첨단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평당 4,70만)
200평 22억(평당 1100만)
수완택지개발지구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
신창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생 122평 80평
주유소
650평 35억 600평 16억
골프연습장 : 120억
광주지역 녹지
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물류공장부지 2900 2600 4900평
수완동 4차선접 1200평 1800평
북구본촌동 850평
전용가능한급매물
자연녹지 : 3800평-대형차진입가 6차선접
생산녹지 : 2800평-평동공단인근 특가상담
우량임야
(연수원 복지시설 골프장 축사 등)
담양 25만평 장성 14만평 보성9만평
보성 56만평 함평50만평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골프연습장 매매가 17억 5천만원
쌍촌동 260평
2종주거지역 긴급처분
투자유망 평당 450만
화순읍 주거지역 2400여평
공장
하남공단 800평
건물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최고의 절세형 물건
◉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핸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토지매매
◉투자 최적지
(전원 주택, 창고, 공장부지)
·국기 산단1차단지 인근, 5561㎡ (약 1,682평) 관리지역, 현재 과수원매기 2억 3천만원
◉전시장 정비공장부지 -광송간 도로변
·신촌동 준주거지역 대지337평 평당 200만원
◉카센타 식당부지 -광송간 도로변
·송정동, 상업지역 대지 294㎡ (89평) 평당 300만원
◉창고 공장부지-벽진동
·대지 697㎡ (212평) 매매가 2억5천만원
◉공장 식당 창고 장례식장 -매월동 준공업지역
·35미터 도로변 2,780㎡ (약840평) 매매가 23억
◉상가부지
·봉선동, 남구청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 2종 일반지역 267평 매매가 8억
◉나주 남평 관리지역 -요양원 공장 물류창고
·현재 농장, 약15,000평, 매매가 상담후 결정, 분할도 가능함
찾는물건
◉상가건물 ◉원룸부지 ◉모텔매매임대 ◉유흥주점 노래방 매매 임대
상가건물/고시텔/모텔/원룸 매매
◉고시원매매(매매가 7억8천만원)
·전대부근, 대출3억원, 44실, 월수 900-1천만원
◉원룸매매(매매가 12억원)
·금호타이어앞, 원룸30실, 투룸6실, 안집2실, 보증금4억8천만원, 월653만원, 대출4억
◉상가건물매매(매매가 11억원)
·상공회의소앞, 지하1층, 지상4층, 대출6억, 보증금1억8천만원 월 750만원
◉매매가 16억원 -남구 봉선동 신축건물
·지하1층, 지상4층, 보증금4억, 월 680만원, 대출6억
◉모텔매매-상무지구(매매가25억)
·지하1층, 지상5층, 객실31실, 대출11억5천만원, 유흥주점유
◉모텔매매-첨단(19억5천만원)
·7층건물, 객실32실,대출12억원, 유흥주점유
◉모텔매매-첨단(매매가 26억)
·8층건물, 객실25실,대출10억원, 유흥주점유
♣기타 상업용 건물 다수 확보
모텔/주유소/가든/원룸/고사원/특목원/상가건물 매매나 임대
♣건물 신축부지 토지 다수 확보
공장/창고/병원/전시장/원룸/모텔/가든/대형미트/예식장/전원주택/카센터/정비공장/기타

분양 수완지구 임대
월드 메디컬 센터
대단지 아파트 및 버스정류장 앞
※ 2009년 3월 10일 준공 ※
·1층 : 약국 , 금·은·안경, 제과점
·2~4층 : 치과, 피부과, 안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각 층 200평 분할 가능)
※1층 약국 특별분양 (이비인후과 입점 확정)
월드 프라자 분양 사무소
☎ 062) 959-1033, 010-7723-1033